

##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A형)

(가) 기존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은 특정 지식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지식의 총아라 일컬어졌던 백과사전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의 권위자만 서술과 편집의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는 지식 생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설령 지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한 지식은 저평가되기 일쑤였다. 과거에는 지성이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지성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축적된 지식을 지닌 지성인, 곧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스텝어스는 지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 창조이며,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인의 지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근대적 관점에서 제기한 이로는 매카이가 있다. 매카이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중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은 무용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 것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육 수준의 상승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문가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인도 자신들이 생활에서 체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집단 지성이라 부른다.

집단 지성은 정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핵심 개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힘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지성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

이러한 집단 지성의 출현으로 우리의 지식 추구 형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누구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낸 지식 생산 메커니즘의 변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말에 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그들만의 남다른 자세가 있었다.

공자는 이러한 자세의 표본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했던 안회는 실천력이 대단했지만 이해력도 어찌나 뛰어났는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고 일컬어진 인재였다. 공자조차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안회만 못하다고 분명하게 인정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자는 그런 안회를 두고 “안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가 하는 말에 기꺼워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공자의 '공자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준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단련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더 완전한 것으로 향상하고자 했던 신실한 노력과 의식의 핵심이 바로 그 구절에 담겨 있다. 자신이 하는 말마다 즉각 알아듣고 그 말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고 기꺼워하는 뛰어난 제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웬만한 스승들은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것에 크게

기빠하면서 그렇지 못한 못한 제자들을 답답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지 않았다. 스승인 자신과 뛰어난 제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지닌 한계와 약점을 명확하게 알아본 것이다.

자신의 말을 모두 잘 알아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를 상대로는 그 말을 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나 사상에 질문이나 반문(反問)을 하거나 비판하고 나서는 제자들은 공자로 하여금 보충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하게 만들었다. 공자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의 범위나 사상의 틀이 더 견고해지고 보다 넓게 확장되며 명확해짐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듣고서 질문이나 반문이 없이 전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 뛰어난 제자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듣고 그 하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못한 질문이나 반문을 내놓는 어리석은 제자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선명하게 인식한 것이다. (...)

생각을 바꾸어 보면 소통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허용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러워진다면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남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소통의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요즈음 대학에서 교과서로 상징되는 공식적 지식 체계들은 그리 큰 존중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지식이 지닌 혁명적 속성을 생각하면, 설명이 힘든 현상은 아니다. 공식적 지식 체계가 지니게 되는 편향과 억압,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공감이 가는 대목도 있다.

공식적 지식 체계를 배우는 일은 그래도 중요하다. 공식적 지식 체계를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런 지식 체계에 비길 만큼 체계적이고 충분한 대체적 지식 체계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런 지식 체계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므로, 그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사회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된다.

공식적인 지식 체계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재발견의 낭비를 크게 줄여 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작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일이다. 남이 알아낸 것을 다시 알아내는 일은 우리 모두가 겪는 바다. 그렇지만 이런 재발견은 당사자에게나 사회에 낭비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한다. 재발견의 낭비를 피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견한 것들이 무엇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교과서는 이미 발견된 지식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그러한 일에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따지고 보면, 바로 이것이 공식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과서로 상징되는 지식 체계의 권위가 아주 낮아졌지만, 그리고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교과서를 흠대하는 사람들은 교과서가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되는 편향이나 억압의 위험보다 훨씬 큰 재발견의 위험을 안는다. 사람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지식의 더미에 조금이라도 더할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가 겨냥한 지식이 학문의 모습을 하든 예술의 모습을 하든, 자신의 재능을 낡은 것의 재발견에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과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과거와 현대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과 관련된 차이점을 모두 기술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다)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